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

마태복음 16:16-20

정윤돈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응답 받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만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우리의 모든 힘든 부분도, 응답받은 부분도 세계복음화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시고 1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개인, 가정, 후대, 교회에 가장 완벽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할 것이 많은데 지나보면 받았던 응답을 잊을 때가 많다. 그러나 받은 응답을 정리해보기를 바란다. 전도사님이 감사절에 램넌트들에게 감사한 것 10개 적어보라고 했는데 램넌트들이 어디서 이야기를 들었는지 100가지를 적은 것을 보고 그것도 감사라고 했다. 또한 2020년을 향해 평생의 기도제목을 정리해봤으면 좋겠다. 나는 중, 고등학생 때부터 기도수첩이 있어서 기도제목을 많이 적었다. 지금은 세계복음화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 필요 없다. 그러나 여러분은 한 번 적어보기를 바란다. 시간 지나니까 그 기도제목이 완벽하게 응답이 되는 것을 보았다. 아닌 줄 알았는데 더 온전하게 된다. 응답이 오든지, 해답이 온다. 그리고 내가 적은 것보다 더 좋게 주시더라. 세계복음화 대열에 설 줄 어떻게 알았겠는가. 굉장히 존경하는 정회권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신학대학교의 이사장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다. 허일 목사님께서도 케냐에 대학교를 만드는데 이사로 같이 일하자고 연락이 왔다. 다 돈 달라는 말이다.(웃음) 그런데 거기에 목숨 걸 이유가 있다. 여러분이 이 사역에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란다. 이 모든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 내가 어디 신학교의 이사장 되게 해 주세요. RUTC 세우게 해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다. 그 기도제목 자체를 만들 수가 없다. ‘237나라의 언약을 붙잡고 그곳에 전도제자를 세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제목을 만들 수가 없다. 하나님이 미리 응답을 주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오늘 적어야 한다.(웃음) 류목사님께서 진짜 기도하면 기도제목이 없어진다고 말씀하셨다. ‘이것 되게 해 주세요.’ 필요 없다. 결국에는 ‘하나님 마음대로 해 주세요.’ 이것이다. 여러분의 뜻대로 안될 때가 기회이다. 남편, 아내, 교회도 너무 싫고 모든 것이 싫어도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축복받는 길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내 아들이야. 네가 이렇게 믿고 순종하는구나.’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말씀하셨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만 하면 되는데.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이러한 결단, 믿음으로 살아가면 다 열어주신다. 이것을 집약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행복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행복하면 나머지 부분은 다 해결되는 줄 믿기를 바란다. 오늘은 기도제목을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해 보고자 한다. 기도제목과 첫 예를 정성껏 드리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마치고자 한다. 2019년 한 해를 지켜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

사를 드린다. 2020년에는 오직 복음 안에서 모든 행복과 축복과 응답이 다 있다는 것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린다.

2019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응답들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도 여러분들, 램넌트들의 많은 헌신으로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시 오는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특별히 성탄행사하면서 무대장치를 하는데, 노동도 이런 중노동이 없다. 이것을 준비하는 램넌트들은 정말 대단하다. 인력을 사서 하라고 하면 하겠는가. 전혀 안 한다. 한 번 해보면 교회에 불만, 불평 없어진다. 헌신 안 해보신 사람이 불만, 불평하는 것이다. 작곡하고 원고 쓰는데 바빠서 불만, 불평할 시간이 없다. 교회가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넘친다. 오늘도 성도분들이 성가대 헌신하신다. 어떤 분들은 맘과 노력과 시간, 어려움 중에서도 헌신하고 헌금하신다. 우리가 남고 여유가 있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켜지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누군가 헌신한 것을 보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옛날에 신학교를 다니는데, 키가 큰 한 친구가 있었다. 신학교에서 행사를 하면 그 친구는 일을 도우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 놈은 참 고만해서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네.’ 나중에는 ‘전도사님, 어디 아파요?’ 비꼬면서 이야기했다. “사실은 제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중, 고등학교 시절에 행사할 때 의자를 나르다가 허리를 다쳐서 아무 것도 못합니다.” 대답을 듣고 회개했다. ‘그렇게 다쳤는데도 신학대학원에 와서 목회자의 길을 가는구나.’ 그 동기를 볼 때마다 은혜가 됐다. 허리 다칠 정도로 하라는 말이 절대대로 아니다.(웃음) 사실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중심은 있어야 한다. 초등학생, 중, 고등학생, 대학생, 중직자 때 할 수 있는 헌신이 있다. 2019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교회에 주신 응답을 다 이야기할 수도, 표현할 수도 없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포함해 보고자 한다.

2019년도에는 최목사님을 원로목사님으로 모시고 제가 담임목사를 하게 되었다. 여러분의 헌신과 은혜와 사랑 때문에 축복된 변화가 있었다. 사무실도 리모델링도 하게 되었다. 절대 불가능한 것이 절대 가능하게 되었다. 지하주차장 도색하는 일이다. 하긴 해야 했는데 해마다 건적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다. 그런데 김수득 집사님이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셨다. 4-5천만 원 들 것을 경비 1천만 원 가지고 다 하셨다. 일당 백의 역할을 하신다. 이런 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 교회에서 누군가를 칭찬하면 지나가면서 꼭 안 좋은 부분을 이야기한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은 법이다. 그 사람의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단점이 있으면 장점도 있다. 원단메시지에서도 살리라고 말씀하셨다.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이 채워주면 되고, 작은 것이라도 잘한 부분이 있으면 칭찬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교회, 사회, 가정도 돌아간다. 그래서 100가지 중에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99가지 흑암을 꺾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 세계를 살릴 수 있다. 대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천 가지, 만 가지 중에서 0.01%의 가능성을 보고 도전한 것이다. 그래서 2020년도는 이러한 축복의 새로운 도전의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한다. 1층의 사무실이 있던 공간은 교육, 교계의 공간으로 마련했다. 어린이부 공간도 마련했다. 1층 뒀을 작게 해놓고 그곳에 안마기를 둘까? 아니면 기도실을 만들까? 생각을 했다. 우리 역사를 보니까 과거에 다 해봤더라. 아무도 그 공기 탁한 곳에서 기도 안한다고 하더라.(웃음) 나 혼자 잘난 것이 아니다. 장로님들에게 ‘이건 맞다’고 생각한 부분을 이야기하면 ‘장로님들에게 말 안했으면 큰 일 났겠구나.’ 생각하게 된다. 젊은 램넌트들과 함께 설계하면서 그 공간을 쪼개서 여러 가지 공간을 만들려고 했다. 그런데 장로님이 공간을 다 트자고 했었다. 그렇게 했더니 얼마나 탁 트이고 좋은지 모른다. 끝까지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함께 의논하고 가야 한다. 성령인도 받는 중요한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감동 주

신 것은 목이 날아가도 해야 한다. 그러나 내 고집 피울 필요는 없다. 우리가 집중하고 고집피울 것은 단 한 가지, 그리스도 밖에 없는 줄 믿기를 바란다. 우리가 강조할 것은 복음과 그리스도 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란다. 나머지는 다 양보해도 된다. 나머지는 다 풀듯해도 된다. 그런데 우리가 꼭 1등해야 할 것이 있다. 진도는 꼭 1등 하하기를 바란다. 생명살리고 사람살리는 일은 1등해야 한다. 우리가 지난 한해는 이것을 위해서 훈련을 받았다. 집중전도신학원, 여자중직자 대상으로 2기 집중전도신학원, 대학청년 중심으로 3기 집중전도신학원을 했고, 중직자대학원으로 인도받았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80명이 넘는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이 중직자대학원에 참여하게 되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렘넌트 사역으로 초동렘넌트 방과 후 교실을 시작하게 되었다. 시골에 있는 교회도 중, 고등학생을 위한 방과 후 학교를 진행하고 있다. 결국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올인해야 할 것이다. 일반학교에 가면 특별히 배울 것이 없다. 그런 시스템까지 갖출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란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다시 묵상해보고자 한다.

예수님을 시험하여 말하기를, 표적보이기를 청한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표적보이기를 청한다. 목사를 시험하고, 교회를 시험하는 엄청난 잘못을 범할 수 있다. 그러한 영적상태를 절대 가지면 안 된다. 조금이라도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한 것이 아니다. 교만한 것이다. 진짜 지혜롭기를 바란다. 싸울 줄 몰라서 안 싸우는 것이 아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사단이 무릎 꿇도록 깨기를 바란다. 그 길은 강단메시지 잘 붙잡는 것이다. 교회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사람 살리는 것이다.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의견을 나타내지 말기를 바란다. 그래서 섬기는 사람이 되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한 주라도 똑바로 해보기를 바란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시험했다. 무서운 영적상태이다. 이 때 예수님께서서는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16장 5절부터 12절까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다. 무슨 말인가. 누룩은 쉽게 말해서 곰팡이를 말한다. 교훈에 오염되지 말라는 것이다. 성령인도 받지 않고 남의 말을 듣는다. 남이 잘못된 이야기는 너무 잘 들린다. 영적상태, 그 틀을 완전히 바꾸기를 바란다. 남의 잘못과 흠을 들추는 것을 보고 혈액순환이 잘 된다면 복음적인 체질이 아닌 것이다. 오히려 진짜 잘못했는지라도 감싸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가족들은 보호하고 교회는 욱하더라.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말기를 바란다. 여러분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되어야지 잘못하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된다. 부인, 남편이 잘못하고 전도를 방해하면 말려야 한다. 교회에 피해를 주고 나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내 남편, 내 아내니까 당신 말이 옳아.' 하면 틀린 것이다. 정말 사랑한다면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군대에서 술, 담배 하는 친구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너희들 집안이 부자야? 너희들한테 있는 것은 건강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술, 담배 다 끊고 그 돈을 모아서 체대여행하자." 해서 진짜로 연초비 모아서 여행갔다. 진짜 친구를 살리기 위함이다. 가정 안에서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 만약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는 잘 받아들이기 바란다. 그래야지 모든 응답이 온다. 그것이 복음이다.

그 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한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묻는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말하기를 '더리는 세례요한, 더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고 대답한다. 이때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묻는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한다. '주

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이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라는 말은 남성명사로 '깨진 돌'이라는 뜻이다. '반석'은 여성명사이다. 천주교에서는 베드로 위에 세웠다고 해서 1대 교황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운 것이다. '이 반석 위에' 반석은 여성명사로 '큰 반석'을 뜻하고, 베드로는 '깨진(작은) 돌'을 말한다.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다. 그래서 지옥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하신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이 오직 예수 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정치, 문화, 경제, 모든 것이 다 풀릴 줄 믿기를 바란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2020년에는 오직 이 복음을 누리다가 이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누리는 그 응답을 받는 모든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한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2020년도 CVDIP로 결단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한두 달 전부터 마음속에 집중하는데 300명 전도가 생각났다. 다른 것이 아니라 300명 전도하는 한두 사람이 나와야 한다. 그 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류목사님께서 300명 말씀을 하신다. 여러분이 그러한 응답을 누리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날마다 복음을 쓰고 듣고 해야 한다.

1. Covenant, 언약이다. 2020년은 날마다 언약의 말씀인 복음메시지를 깊이 묵상하기를 바란다. 300명 영접하라고 하면 '어떻게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생각한다. 그럴 필요 없다. 1분, 3분, 5분 복음메시지, 다양하게 있다. 매일 계속 연습해보라. 어느 순간 쉽게 복음 전하는 시간이 온다. 그것이 행복하고 자연스럽게 와야 한다. 내가 먼저 복음을 누리며 들으면서 행복하기를 바란다.

2. Vision, 비전이다. 237나라를 살릴 나의 구체적인 선교의 비전을 세우고 성도들은 나의 선교지와 나의 선교사를 찾고 그 나라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헌금을 계획해 보시기를 바란다.

3. Dream, 드림이다. 특별히 대학생, 청년들은 잘 듣기를 바란다. 24시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발견하고 그 꿈을 위해서 도전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4. Image, 이미지이다. 기도이다. 미래가 앞당겨 보일만큼 깊은 기도를 누리는 한 해가 되어서,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어떤 계약을 통해서 평강을 놓치지 않는 절대 제자의 응답을 누리기를 바란다. 아무리 큰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령으로 보여주신다. 그렇게 되면 평강이 온다. 주변이 정말 문제가 많고 어렵더라도 그것이 나와는 관계없다. 하나님이 주실 미래가 환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5. Practice, 실천이다. 2020년도에도 900현장과 3000제자를 위해서 올인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 300명을 영접하고 30개의 다락방의 응답을 받아서 모든 성도들이 인생을 전도자의 작품을 남기기를 기도하겠다. 2020년 한 해도 오직 복음 때문에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축원드린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2020년 한해는 정말로 성도들이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복음의 기쁨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이 부담이 아니라 교회가,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편하고, 가장 즐거운 그 현장이 교회 현장, 전도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